

인문학적 소양과 공감능력이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김세영^{1*}

¹기독교간호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s of Humanistic Knowledge and Empathy Ability on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Se-Young Kim^{1*}

¹Department of Nursing, Christian College of Nursing

요약

본 연구는 인문학적 소양과 공감능력이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의 간호대학생 250명으로 편의표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 문화적 역량의 정도를 측정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 문화적 역량 정도를 측정하였다. 평균 인문학적 소양 정도는 2.50점, 공감능력 평균 3.40점, 문화적 역량 평균 3.33점으로 나타났다. 인문학적 소양과 공감능력, 인문학적 소양과 문화적 역량,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도 약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학업성적,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은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예측인자로, 예측인자는 문화적 역량 변인을 40.0%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인문학적 소양과 공감능력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교육과정 개선 및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s of humanistic knowledge and empathy ability on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A convenience sample of 250 nursing students were recruited. The average scores were 2.50 for humanistic knowledge, 3.40 for empathy ability, and 3.33 for cultural competence. Humanistic knowledge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cultural competence. Also, the empathy abili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humanistic knowledge and cultural competence. Finally, cultural competence, empathy ability and level of academic score have shown to influence cultural competence. The research finds that humanistic knowledge, empathy ability and level of academic score influenced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the basic information for improving the curriculum and quality of nursing for nursing students' cultural competency enhancement.

Key Words Cultural Competence, Empathy, Humanities, Knowledge, Nursing Student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이슈가 더욱 뜨거워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인 입국금지요청, 다문화가정 2세를 향한 코로나-19 관련 혐오발언 등 차별행위가 논란이 되었다. 중국동포간병인에 대해서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서의 주 돌봄인력인 그들을 코로나-19 확산자로 여겨 간병을 꺼리

면서 돌봄인력의 부족현상이 발생했고 결국 불편은 고스란히 환자의 몫으로 돌아오기도 했다[1]. 상호존중을 낳는 평등의 선순환[2]은 차이를 받아들이고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 시작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문화적 역량은 세계시민으로서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타인과 조화로운 공존을 가능하게 한다[3]. 2019년 우리나라의 외국인 체류자는 전체인구의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급격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는 다른 문화에 대해 인식할 수 있고 다른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Corresponding Author : Se-Young Kim(Christian College of Nursing)

Tel: +82-62-650-8069 Email: seyeong77@ccn.ac.kr

Received October 22, 2020

Revised November 22, 2020

Accepted December 21, 2020

능력인 문화적 역량[4]을 더욱 필요로 한다. 임상현장도 갈수록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자가 많아지고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의 필요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5]. 국내 외국인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만족도 중 ‘문화존중적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낮게 나타난 연구[6]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자들이 만족스런 의료서비스를 받고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높은 문화적 역량이 중요하다. 그러나 문화는 한 사회의 개인이나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 정신적 과정의 산물[7]이기 때문에 문화적 역량의 습득과 강화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과정 안에서 이루어진다.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 습득 단계 중 첫 단계인 자신의 문화적 편견 인지[8]도 단시간 안에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러므로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을 위해서는, 간호대학의 교과 및 비교과과정에 문화적 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의 제공을 통해 학부 교육에서부터 지속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화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강화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을 찾아내고 적용방안을 모색하여 간호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에서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의사소통능력, 공감능력, 다문화태도, 외국어 능력, 다문화 경험 등[5, 9]이었다.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의 자연스러운 수용에서 시작되는 문화적 역량은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과 세계에 대한 폭넓은 조망[10]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므로 사람중심의 관점을 키울 수 있는 인문교육[11]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문화적 역량은 문화를 통해 세계를 발견하며 지식과 자신을 구성하는 능력[12]이며, 인문학적 소양의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적 자극과 경험제공이 요구됨에도[13] 이제까지 그 관계를 시도한 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간호사의 인문학적 소양은 인간중심 돌봄 제공, 인간 감정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간호의 예술적 요소와 미학적 지식을 통합하고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속성을 지닌다[11]. 그러므로 문화적 역량과 인문학의 상호관계에 대한 고찰 및 인문학적 소양이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교육현장에 접목시키는 등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증진을 도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공감능력은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고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를 통합할 수 있다[14]. 공감은 갈등관리 방식과 협력에 영향을 주므로[15],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자들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공감능력이 다문화사회에서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Yang 등의 연구[16]는 공감능력이 문화적 역량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Kim [14]은 공감능력이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간호사가 환자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환자의 경험을 쉽게 공유하면서 개별화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17] 문화적 역량을 기초로 한 공감이 필요하다. 이에 인문학적 소양과 함께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이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문화접촉 및 경험에 관한 연구[9,18]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문학적 소양이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예비 간호인력인 간호대학생의 인문학적 소양과 공감능력이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인문학적 소양과 공감능력의 정도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차이를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및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 문화적 역량 정도를 알아본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 문화적 역량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의 관계를 규명한다.
4. 대상자의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 문화적 역량 정도 및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도구

일반적 특성을 묻는 7개의 문항과 인문학적 소양 관련 13문항, 공감능력 30문항, 문화적 역량 27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2.2.1 인문학적 소양

대상자의 인문학적 소양은 Kim [19]이 개발한 인문학적 소양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3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인문학적 소양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 a=.89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87 이었다.

2.2.2 공감능력

공감능력의 측정은 Davis가 개발한 Interpersonal Reaction Index (IRI)를 Jeon [20]이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Jeon [2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a=.84 이었고, 본 연구 신뢰도는 Cronbach’ a=.84 이었다.

2.2.3 문화적 역량

문화적 역량은 Han [21]의 문화적 역량 도구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문화적 역량 척도는 총 27문항이며, 각 문항은 Likert 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Han [2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a=.91였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91였다.

2.3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모집단은 G시 지역의 간호대학생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편의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참여를 원하는 학생을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자는 2019년 9월 24일 C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심의번호: CCN-2019-6-1)을 받은 후 면담을 시작하였다.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비용이나 위험이 따르지 않으며 연구 도중 원하지 않을 경우는 언제든지 참여를 거절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간호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익명과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고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한 후 자기 기입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총 250부를 배부하여 자료 분석 시 응답이 불성실하고 신뢰성이 의심되는 3부를 제외한 최종 247부(98.8%)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2.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5.0 for Windo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 문화적 역량 정도는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 문화적 역량 정도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의 관련성 파악을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

다.

4) 연구대상자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입력 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회귀모형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여부와 잔차분석을 시행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일 대학의 간호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연령은 23.4세로 20대가 223명(90.3%)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6명(6.5%), 40대 이상이 8명(3.2%)이었다. 연구대상자의 206명(83.4%)은 여성이었고, 미혼인 대상자가 233명(94.3%)이었다. 종교의 경우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129명(52.2%), 없는 대상자는 118명(47.8%)이었다. 학년 구성 비율은 1학년 80명(32.4%), 2학년 40명(16.2%), 3학년 40명(16.2%) 이었고 4학년은 87명(35.2%)으로 4학년이 가장 많았다. 다문화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192명(77.7%)이었고, 55명(22.3%)은 다문화 교육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학업성적은 ‘상’이 62명(25.1%), ‘중’이 153명(61.9%)을 차지하였고 ‘하’로 응답한 대상자가 32명(13.0%)이었다.

3.2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 정도

대상자의 평균 인문학적 소양 정도는 5점 만점에 2.50점이었으며 1.0점에서 4.5점의 범위에서 측정되었고, 공감능력 정도는 2.0점에서 4.3점까지 측정되었는데 공감능력의 평균은 3.40점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역량 범위는 2.2점에서 4.9점까지 측정되었으며 평균은 3.33점이었다 [Table 1].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 문화적 역량의 정도를 검증한 결과, 공감능력이 성별($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Table 1] Degree of Humanistic Knowledge, Empathy Ability, and Cultural Competence

[표 1]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 정도

Variables	M±SD	Range
Humanistic knowledge	2.50±0.67	1.00~4.54
Empathy ability	3.66±0.39	2.27~4.57
Cultural competence	3.33±0.47	2.15~4.93

로 나타났고 학업성적은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여학생의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성적은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 모두에서 ‘상인 대상자가 ‘중’보다 ‘중’인 대상자가 ‘하’보다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밖의 특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2].

3.4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의 상관관계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 간의 상관관계 검증 결과, 대상자의 인문학적 소양과 공감능력은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r=0.14, p<.05$), 인문학적 소양과 문화적 역량($r=0.28, p<.001$),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r=0.26, p<.001$)도 약한 양의 상관관계로, 인문학적 소양과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5 인문학적 소양과 공감능력이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예측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인문학적 소양과 공감능력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검정 결과, 모든 변수들의 상관계수가 .80을 넘지 않고, 공차한계는 0.961, 분산확대인자(VIF)도 1.04로 다중공선성

[Table 2] Differences of Humanistic Knowledge, Empathy Ability, Cultural Compet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의 차이

Variables	Categories	n(%)	Humanistic knowledge		Empathy ability		Cultural competence	
			M±SD	T/F (p)	M±SD	T/F (p)	M±SD	T/F (p)
Age	≥29	223 (90.3)	2.51±0.67		3.66±0.39		3.34±0.48	
	30-39	16 (6.5)	2.49±0.63	0.01 (.994)	3.60±0.43	0.63 (.532)	3.22±0.31	0.50 (.605)
	≤40	8 (3.2)	2.51±0.73		3.79±0.30		3.31±0.51	
Sex	Male	41 (16.6)	2.46±0.69	-0.55 (.586)	3.47±0.47	-3.41 (.001)	3.22±0.51	-1.64 (.103)
	Female	206 (83.4)	2.52±0.67		3.70±0.36		3.35±0.46	
Marital status	Single	233 (94.3)	2.51±0.67	-0.02 (.986)	3.67±0.39	0.79 (.428)	3.34±0.47	0.88 (.382)
	Married	14 (5.7)	2.51±0.68		3.58±0.45		3.22±0.45	
School year	1	80 (32.4)	2.58±0.74		3.61±0.42		3.39±0.53	
	2	40 (16.2)	2.48±0.66	0.55 (.647)	3.59±0.41	2.39 (.070)	3.33±0.45	0.62 (.604)
	3	40 (16.2)	2.51±0.59		3.65±0.40		3.29±0.39	
	4	87 (35.2)	2.45±0.64		3.75±0.34		3.30±0.46	
Religion	Yes	129(52.2)	2.52±0.70	-0.68 (.498)	3.67±0.43	0.58 (.563)	3.30±0.47	0.83 (.406)
	No	118(47.8)	2.46±0.62		3.65±0.36		3.35±0.47	
Educational experience of multicultural	Yes	192(77.7)	2.49±0.66	-0.70 (.485)	3.68±0.39	1.25 (.213)	3.34±0.46	0.39 (.698)
	No	55(22.3)	2.56±0.72		3.60±0.40		3.31±0.51	
Level of academic score	High	62(25.1)	2.64±0.70		3.76±0.37		3.66±0.40	
	Medium	153(61.9)	2.51±0.59	3.96 (.020)	3.66±0.37	5.36 (.005)	3.28±0.41	4.01 ($<.001$)
	Low	32(13.0)	2.24±0.73		3.48±0.49		2.94±0.48	

[Table 3] Correlation among Humanistic Knowledge, Empathy Ability and Cultural Competence

[표 3]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의 상관관계

Variables	Humanistic knowledge	Empathy ability	Cultural competence
	r (p)	r (p)	r (p)
Humanistic knowledge	1.00		
Empathy ability	0.14 (.002)	1.00	
Cultural competence	0.28 (<.001)	0.26 (<.001)	1.00

이 넓은 변인이 없었으므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적($\beta=.38, p<.001$), 인문학적 소양($\beta=.33, p<.001$), 공감능력($\beta=.23, p<.001$)은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예측인자로 나타났으며, 이들 예측인자들은 문화적 역량 변인을 40.0% 설명하였다[Table 4].

[Table 4] Factors Influencing on Cultural Competence

[표 4] 문화적 역량의 영향 요인

Variables	B	B	t	p	R ²	F	p
Level of academic score	0.19	.21	4.31	<.001			
Humanistic knowledge	0.23	.33	6.49	<.001	.40	54.26	<.001
Empathy ability	0.28	.23	4.48	<.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문학적 소양과 공감능력이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되었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 정도를 살펴본 결과, 대상자의 평균 인문학적 소양 정도는 평균 2.50점, 공감능력 평균 3.40점이었으며 문화적 역량의 평균점수는 3.33점이었다. 대상자의 인문학적 소양은 간호사 대상의 연구 결과인[13] 2.29점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간호대학생의 평균인 2.46점[22], 2.55점[23]과 비슷한 결과였다. 반면 간호사나 간호대학생이 아닌 과학영재의 인문학적 소양 점수[19]인 3.04에 비해서는 낮은 점수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인문학적 소양을 계발하고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의 공감능력 점수는 간호사 대상의 연구결과인 3.50점[13]과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점수인 3.50점[16]과 유사한 결

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타인을 돕는 행동을 많이 하고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25]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학교와 실습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화적 역량의 평균점수는 3.33점으로, 2010년대 초중반의 간호대학생 대상의 연구 결과인 2.7점[16]과 3.04[21]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2020년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결과[14]인 3.44점과는 비슷한 결과였다. 이 결과는 최근 들어 좀 더 이

른 연령대에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문화적 역량도 점점 향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비 전문간호인력으로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은 임상에서 만나게 될 다양한 문화에 대응한 적절한 간호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자질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 문화적 역량의 정도를 검증한 결과, 공감능력이 성별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학업성적은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성별에 따른 공감능력의 차이는 Jeon의 연구[20]와 유사한 결과로 여학생과 남학생 간의 공감수준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기 학생 전 연령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공감수준이 높게 나타난 연구[25]와, 간호사의 성별에 따른 감성지능의 차이를 보인 연구[26]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남성에 비해 여성은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정서적 반응을 도출하는 공감능력이 높다. 본 연구 결과는 남자 간호대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남학생의 공감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을 모색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대상자의 학업성

적은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학업성적이 학생의 전공과목 만족도와 인성, 대학생활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27]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대상자의 인문학적 소양과 공감능력, 인문학적 소양과 문화적 역량, 그리고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의 관계 각각 약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인문학적 소양과 공감능력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연구 결과[13]와 일치하였고, 공감능력과 문화적 역량 간에 유의한 순상관 관계를 보인 연구[14,16]를 지지하는 결과였다. 본 연구결과 인문학적 소양과 공감능력이 문화적 역량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인문학적 소양과 공감능력 강화를 통한 문화적 역량 증진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을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유의한 예측인자는 학업성적, 인문학적 소양과 공감능력이었다고, 이들 예측인자들은 문화적 역량 변인을 40% 설명하였다. 학업성적이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예측인자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학업성적이 공식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관계에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연구결과[28]로 비추어 볼 때 의미가 있으나 학업성적과 문화적 역량과의 관계를 찾아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어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반면에, 본 연구 결과는 다문화교육이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 증진에 효과를 보인 선행연구[29]와 달리 다문화교육 경험에 따라 문화적 역량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이론적 교육만을 고수하기보다는 다문화를 접할 기회 제공이 더 필요함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다양한 문화권에 노출되는 기회가 많아질수록 문화적 역량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 결과, 인문학적 소양과 공감능력 중 문화적 역량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인문학적 소양으로 확인되었다. 인문학은 인간의

기본 존재가치와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므로[19], 열린 의식으로 다양한 문화에 접근하면서 문화적 차이를 판별하고 비평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문화적 역량[12]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된다. 또한 간호사의 인문학적 소양은 돌봄의 주체인 인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26] 문화적 역량은 다양한 문화 가치와 신념을 가진 대상자에 적합한 간호를 제공하므로[30] 서로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인문학적 소양이 문화적 역량의 영향요인이 된다면 정규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인문학적 소양교육을 구체화하는 등 좀 더 다양한 교육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충실도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과 인문학적 소양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31]. 인문학적 소양의 증진이 결국 융합적 사고력 증진을 기할 수 있게 되므로[31] 인문학적 소양 강화는 각 대상자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에 맞는 간호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감능력이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 결과[14,16]를 뒷받침하며, 대학생의 공감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공감능력 뿐 아니라 문화적 역량의 증진을 꾀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공감은 간호사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대상자의 감정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17]이므로, 공감능력을 지닌 간호사는 개별 대상자의 요구에 민감할 수 있게 된다. 공감능력은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대상자들과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돌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그런데 간호사의 임상경력이 많을수록 공감능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32]를 통해, 공감능력이 강화되는데 많은 훈련의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임상 경력이 쌓이길 기다리기보다는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대학교육이 미래 간호사의 공감능력의 수준을 높이고 그에 따른 문화적 역량 강화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공감능력을

증진하려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안에서 훈련된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공감을 통한 치료적 상호관계를 형성할 뿐 아니라 문화적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간호수행으로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급속히 다민족, 다문화, 고령화, 핵가족화 등 문화적 다양성 사회로 변모됨에 따라 그에 걸맞은 최선의 간호를 위해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전달체계 내에서 문화적 배경이 다른 개인, 가족,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은 어떤 시점에서 완성되는 성과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과정[33]을 의미하므로, 문화적 역량의 영향 요인과 그 효과를 평가하여 장기적 교육 계획을 통한 꾸준한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 이에 선행연구에서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아울러, 본 연구 결과로 나타난 문화적 역량의 영향 요인인 인문학적 소양과 공감능력을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문화적 역량 증진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이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및 간호의 질 향상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 그리고 문화적 역량은 순상관관계로 나타났고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업성적, 인문학적 소양, 공감능력이 40.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문학적 소양이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나타나 전공교과목과 비교과과정 프로그램을 통한 인문학적 소양 강화로 문화적 역량증진이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중요성과 의의를 들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문화적 역량을 위한

인문학적 소양과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전공교과목 및 비교과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일개 지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간호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어 전국 단위의 간호대학생을 포함한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Yoyang News. 'Nursing Home, Geriatric Hospital [Internet]'. Seoul: Yoyang News, 2020.
- [2] K-K. Choi, 'The educational task for equality of mutual respect'.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Idea*, Vol.22, No.3, pp.241-273, 2008.
- [3] J-W. Green, *Cultural awareness in the human services: A multi-ethnic approach*, 3rd Ed, Prentice-Hall, New Jersey, 1995.
- [4] S-H. Min, and M-Y. Lee, 'A exploratory study about the cultur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s-focused on the cultural awarenes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11, No.1, pp.183-206, 2009.
- [5] <https://namu.wiki>
- [6] K-S. Kim, J-W. Ahn J-A, Kim, and Kim HJ. 'A comparison study using mixed methods on foreign residents' satisfaction with Korean health care servic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4, No.1, pp.86-96, 2014.
- [7] <https://100.daum.net>
- [8] L. Dayer-Berenson, *Cultural competencies for nurses: Impact on health and illness*. Jones and Bartlett Publ Inc, 2011.
- [9] M-J. Kim, 'A study on multicultural attitude, cultural competence and influencing factors among nurses in Korea',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0, No.1, pp.159-174. 2019.
- [10] J-D. Choe, 'Humanistic insight in medical/medicine',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Vol.8, No.1, pp.13-22, 2006.
- [11] J-Y. Ha, S-Y. Jeon, and J-W. Cheon, 'Concept analysis of humanities knowledge: Nursing appli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1, pp.937-947, 2017.

- [12] E-J. Lee 'The discourse on the cultural competencies and their component parts in France',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Vol.3, No.2, pp.51-79, 2008.
- [13] Y-S. Kim, 'Emotional intelligence and humanistic knowledge and empathic ability of nurs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3, pp.337-348, 2019.
- [14] J-Y. Kim, 'The influence of empathy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on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0, No.5, pp.367-374, 2020.
- [15] S-S. Gu, 'The influence of the special education teacher's empathy ability on their conflict management style and teacher efficacy',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Vol.14, No.3, pp.501-522, 2012.
- [16] S-Y. Yang, H-N. Im, and J-H. Lee,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ompetency and empath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9, No.2, pp.183-193, 2013.
- [17] S. Yang, K-S. Lee, J-S. Lee, H-J. Kwon, M-H. Lee and K-O. Oh, *Mental Health Nursing, 5th Ed*, Hyunmoonsa, Seoul, 2016.
- [18] J. Chio, and J-A. Kim, 'Effects of the experiences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multicultural contact on cultural competence among Korea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Health communication*, Vol.14, No.1, pp.17-24, 2019.
- [19] Y-I. Kim, "The study of resilience of the gifted in science : related with humanistic knowledge", Master's thesis of *Incheon National University*, 2014.
- [20] B-S. Je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altruistic behavior", Master's thesis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2.
- [21] S-Y. Han, "Development of a cultural competence scale for nursing students", Dissertation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4.
- [22] S. Kang,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s of humanistic literacy and empathy abilit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10, No.1, pp.35-43, 2020.
- [23] M-J. Kim, 'Influence of humanities and empathy on ethical valu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ol.28, No.6, pp. 1865-1874, 2016.
- [24] H-I. Jo, and M-H. Lee, 'The mediating effect of prosocial behavior in the relation between empathic abil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7, No.11, pp.139-158, 2010.
- [25] S-Y. Hwang, and M-S. Yoon, 'Developmental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33, No.2, pp.193-210, 2019.
- [26] J-Y. Ha, and S-Y. Jeon, 'The effects of humanistic knowledge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communication skills of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2, No.3, pp.264-273, 2016.
- [27] M-H. Nam and H-O. Kim, 'Effect of personality and resilience on satisfaction with maj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4, No.4, pp.298-306, 2018.
- [28] S-J. Lee, Y-W. Chun, W-Y. Jung, and S-K. Han, 'Grades, social relations, and happiness among middle-school students: A gender compariso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26, No.1, pp.121-154, 2016.
- [29] M-H. Park, and E-A. Park, 'Effect of cultural competence education for nurse',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Vol.6, No.2, pp.115-133, 2013.
- [30] M-J. Kim, 'A study on multicultural attitude, cultural competence and influencing factors among nurses in Korea',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0, No.1, pp.159-174, 2019.
- [31] S-P. Jang, and J-I. Kim, 'Exploring causes of the convergence thinking skill by extracurricular activities : Focusing on liberal arts knowledge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13, No.4, pp.135-156, 2015.
- [32] H-Y. Kim, G-H. Nam, and S-H. Kwon, 'Mediating effects of empathy and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rminal care stress and

performance for nurses in a tertiary hospital',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ol.20, No.4, pp.253–263, 2017.

[33] J. Campinha–Bacote, 'The process of cultural competence in the delivery of healthcare services: A model of care',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Vol.13, No.3, pp.181–184, 1999.